

## 아시아, 국내최초 벌꿀 발효주 ‘밀월(蜜月)’ 개발/시판

미리내 회사 직원의 한사람으로 인해 밀원주가 탄생하게 되었다. 직원의 한사람은 미국에서 벌꿀 제조 기술과 노하우를 국내에 전수하고자 양봉관련 업체를 방문하였으나 관심부족으로 인하여 시판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으나 직원의 본 고향인 경기도 연천 미리내 회사 측에서 제의받고 ‘밀월(蜜月)’을 제조 출시하게 되었다. 밀원주는 순수 국내산 아카시아꿀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할 계획이며, 고가의 주조원료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신뢰도 강화를 위해 모든 원료는 한국양봉협회의 엄격한 품질검사를 통과한 국내산 아카시아꿀로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아카시아꿀의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맛과 향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공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더욱 소비자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주류제조업체로 발전시켜 나가기위한 마케팅전략을 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벌꿀발효주 - 특권층만을 위한 약주(藥酒)

벌꿀발효주는 조선시대 한의학 서적인 동의보감(東醫寶鑑), 생활백과사전인 산림경제(山林經濟) 등에 전래되는 대표적인 전통 보양주(補養酒)다. 그러나 양봉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던 당시의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극히 일부의 특권층만을 위해 빚어졌던 아주 특별한 약주(藥酒)였다.

### 벌꿀발효주 - 신(神)에게서 훔친 인류 최초의 술

Honeywine(허니와인) 또는 Mead(미드)라고 불리는 서양의 벌꿀발효주는 신화(神話) 속의 술로 전해지고 있다.

오랫동안 북유럽을 지배한 게르만족의 북구신화(北歐神話)에 따르면 신(神)들은 벌꿀발효주를 즐기며 영생(永生)을 누리고 시(詩)를 노래하였다고 전해지고 있고, 이를 시기한 인간이 신(神)들로부터 벌꿀발효주를 훔쳐내어 마시게 되면서 비로소 인간도 술을 즐기며 시(詩)를 노래하였다고 한다.



## 벌꿀발효주 - 쇠퇴(衰退)의 역사와 Honeymoon

조선시대 이전까지 양봉업이 전문화되고 대형화되지 못했던 대한민국에서 벌꿀발효주는 극히 일부의 특권층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술이었다. 전통적으로 꿀을 최고의 건강식품이며 고가(高價)의 선물용품으로만 생각해왔던 이 땅에서 본격적인 벌꿀발효주의 생산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으며, 그저 몇몇 한의학 서적 등에 전해지는 일부 특권층만의 보양주(補養酒)로서의 명맥만을 유지해왔었다.

북유럽에서 시작된 서양의 벌꿀발효주는 널리 아프리카까지 확산되었다. 그러나 중세시대 서인도에서 발명된 설탕의 등장으로 양봉업이 급격히 쇠퇴하면서 그 자취를 감추어 소수의 지역에서 가내 행사를 위한 가양주의 형태로서 명맥만을 유지해왔었다.

최음효과(催淫效果)와 강정효과(強精效果)가 있으며 아들을 얻는다는 속설 때문에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을 위해 벌꿀발효주를 준비하던 당시 북유럽의 전통에서 신혼(밀월; 蜜月)여행을 뜻하는 영단어 Honeymoon(허니문)이 유래되었다.

## 벌꿀발효주 - 부활(復活)의 시작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소득이 향상되면서 Well-Being Trend가 사회전반에 확산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주류업계에도 예외 없이 영향을 미쳐 수입 포도주의 양이 급증하고 소주의 알코올분이 낮아지며, 한약재 등 다양한 건강성 부재료를 첨가한 제품들이 줄지어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손꼽히는 벌꿀을 이용한 벌꿀발효주 개발을 위해 장기간 동안 노력한 결과로 밀원을 출시하게 되었다.

제조업체 : 미리내

본사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290-45

대표 전화 : +82-31-834-1955

팩 스 : +82-31-834-7955